

본 문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서면 허락없이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2014년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Ⅱ)

고교명 :

성 명 :

◆ 답안 작성시 유의 사항 ◆

- ◇ 각 문제의 답안은 배부된 답안지에 표시된 문제지 번호에 맞춰 작성하시오.
- ◇ 각 문제마다 정해진 글자수(분량)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것이며, 지정된 글자수(줄 수)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 ◇ 답안지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시오.
- ◇ 답안은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오.(연필 사용 가능)
- ◇ 답안 수정시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하시오.(수정 테이프 또는 연필지우개 사용 가능)
- ◇ 답안지 본문과 여백에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어떤 내용 또는 표시를 하면 감점 처리 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계강자(季康子)가 공자(孔子)께 물었다. “백성들이 스스로 경건하게 되고, 충성스럽고 부지런히 힘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당신 스스로 장엄하게 하여 백성을 대하면 그들도 경건해질 것이고, 스스로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면 백성들도 충성스러워질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등용하고 부족한 사람을 잘 가르치면 백성들이 스스로 부지런히 힘쓰게 될 것입니다.”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가 무엇인가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정치란 곧 올바름입니다. 당신이 올바름으로써 인도해나간다면, 누가 감히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계강자가 도둑떼를 근심하여 공자에게 그 대책을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진실로 당신부터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비록 상을 준다고 하여도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만일 부도덕한 자들을 다 죽여, 도가 있는 세상을 만든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계강자께서는 정치를 하신다면서 어찌 사람을 죽일 공리를 하십니까! 먼저 당신이 착해진다면 백성들도 착해질 겁니다. 군자는 바람과 같고 소인은 풀과 같습니다.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바람 부는 대로 기울어지게 마련입니다.”

- 공자 문도 엮음, 『논어』

【나】 무릇 군주라 함은, 특히 신군주(新君主)인 경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의도 저버릴 줄 알아야 하며, 자비심을 버리고 인간미를 잃고 반종교적인 행동도 때때로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 두어야 하겠다. 즉, 대중에게 선한 인간으로만 통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군주는 운명의 변화, 사태의 변천에 따라 자유자재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될 수 있으면 선(善)의 길에서도 멀어지지 말아야 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악의 길에도 서슴지 않고 발을 들여 놓을 줄 알아야 하겠다. ... (중략) ... 사람들은 대체로 당신을 속속들이 알기보다는 겉으로 나타난 외관만으로 당신을 판단하는 법이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지만,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만 당신을 볼 뿐 실제로 당신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거기 에다가 이 소수의 사람들도 군주의 권력이 뒷받침하는 다수의 여론을 반대하지는 못한다. 더구나 재판소가 소환 심문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위, 특히 군주의 행동에 관해서는 결과만이 중요할 뿐이다. 그래서 군주는 어쨌든 전쟁에 이기고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면 그의 수단은 누구로부터도 훌륭한 것으로 칭송받는 것이다. 대중은 언제나 외관만으로, 그리고 결과만으로 평가하게 마련이며 이 세상은 이들 속된 대중으로 가득 차 있다. ... (중략) ... 여기서 이름을 굳이 밝힐 수는 없지만, 요즈음 어떤 군주는 입으로는 평화와 신의를 외치면서 실은 이 두가지를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하기는 만약 그가 평화와 신의를 고지식하게 존중하였다더라면, 아마 지금쯤 그의 국토도 그의 명성도 이미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 마키아벨리, 『군주론』

【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년)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결합된다면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입법자가 법을 집행까지 할 수 있어 법을 폭압적으로 집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사법권이 입법권이나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재판관이 입법자도 되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거나, 법 집행자가 재판까지 하게 되면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나 집단이 세 가지 권력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자유를 모두 잃게 된다.”라고 지적하였다.

-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문제1] 제시문 【가】의 공자와 【나】의 마키아벨리가 정치권력의 지배와 복종관계를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제시문 【다】의 몽테스키외의 입장에서 【가】의 공자와 【나】의 마키아벨리의 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12 ~ 13줄 (360 ~ 39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혼혈’ 개념이 이종교배라는 직접적 의미와 ‘문화의 혼합’이라는 은유적 의미 양쪽 모두로 가장 자주 사용된 곳은 스페인과 스페인계 아메리카 지역이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 말은 때로는 욕설로 때로는 찬사로 쓰였고 학문적 분석 도구이기도 했다. 철학자 미겔 우나무노(Miguel Unamuno)의 사촌이기도 한 바스크족 인류학자 텔레스포로 아란사디 우나무노(Telesforo Aranzadi Unamuno)는 문화적 혼합을 옹호 했다.

러시아의 문학 이론가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 또한 문화 혼종성과 혼종화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그는 16세기 풍자극인 「무명 인사들로부터의 편지」를 라틴어와 독일어의 “복잡하고 의도적인 언어의 혼합체”라고 묘사했고, 이를 언어들의 “상호조명”이라 칭한 현상을 실증하는 사례로 봤다. 바흐친에 따르면 이러한 상호조명은 르네상스 시대에 절정에 달했고, 이는 그가 책 한 권을 모두 할애해 분석한 프랑수아 라블레(François Rabelais)의 작품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문학적 혁신과 창조성을 자극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피터 버크, 『문화 혼종성』

【나】 세계는 핵, 환경, 보건, 경제, 문화 등과 관련한 공통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세계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국가 및 민족 간의 갈등으로 핵무기의 확산과 핵전쟁의 위협 아래 살고 있다. 둘째, 과학 기술의 발달과 지속적인 경제 개발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환경 파괴를 가져왔다. 셋째, 오늘날 세계의 경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빈곤 문제로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 다섯째, 문화의 세계화는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지역문화의 소멸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세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복지와 정의를 추구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려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세계주의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세계주의는 민족이나 국가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인류 전체를 하나의 세계 시민으로 본다. 세계주의는 모든 시민이 국가나 민족과 같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을 거부하고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한다. 세계 시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권의 존중을 도덕적 가치로 지켜야 한다. 세계 시민은 이러한 도덕 가치를 바탕으로 인종, 민족, 국가의 구별을 넘어서 관용, 존중, 협력 등의 정신을 가짐으로서 세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다】 앤드슨(Benedict Anderson)은 민족이라는 구분법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인쇄자본주의 발달이라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라틴어가 폭넓은 언어로 통용됐다. 독일어나 네델란어는 지역 언어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접하기 쉬운 지역 언어로 만든 인쇄물이 다수 제작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지역 언어가 민족을 나누는 구분점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서로 교류한 적이 없었던 이들이 신문과 책 같은 인쇄물을 통해 서로 같은 언어권임을 확인하면서 이 언어집단을 신이 내린 숙명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앤드슨이 말하는 상상의 공동체다.

“민족은 자연스럽게 숙명적인 공동체이므로 구성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됐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피살·살해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구성원들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민족주의적 결정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공동체 집단 내에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성격, 그리고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간다. 하지만 이들은 상상의 공동체로 묶이는 순간 무시무시하고 비이성적인 일들을 해낸다.

- 매일경제, 2012년 11월 9일자

[문제2] 제시문 【가】와 【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제시문 【나】의 세계주의와 제시문 【다】에 나타난 앤드슨의 민족 개념을 대비하여 서술하시오.

<12 ~ 13줄 (360 ~ 39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계화를 서구 선진 자본주의의 시장 확대과정으로 여기는 입장에서는 세계화가 우려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화가 시장과 자본의 독점을 초래하여 개인 간 국가 간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며, 무한 경쟁에서 뒤쳐진 후진국의 경제가 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문화의 상품화가 전반적으로 진행되어 문화의 독점화와 획일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하지만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먼저 세계화 시대에는 각국의 상호 협력 및 교류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동시에 가능해지며, 인터넷 등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각국의 경제가 긴밀히 관계를 가지면서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공동의 번영을 이룰 기회가 증대된다고 주장한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지역 문화를 서로 교류하게 되어 전(全)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문화 수준의 향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나】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전지구적 보편주의가 아니라 유럽적 보편주의, 즉 유럽적 맥락에서 비롯되어 전지구적 보편가치가 되기를 열망하거나 그러한 가치로 제시되는 일련의 원칙들과 윤리적 견해들, 곧 그 신봉자들 중 많은 이들이 자연법이라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자연법은 한편으론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강자들의 물질적 착취를 정당화한다. 이렇듯 보편타당한 자연법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면서도 어떤 이들의 범죄는 비난하고 다른 이들의 범죄는 그냥 못 본 체 넘겨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법 주장은 허구이다.

나는 허구의 유럽적 보편주의는 부정하지만, 전지구적 보편가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한 전지구적 보편가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를 창출하려는 인간의 기획은 인류의 위대한 윤리적 기획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강자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넘어서 선(善)에 대한 진정한 공통의 (따라서 훨씬 더 전지구적인) 인식으로 향해갈 때 비로소 성취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전지구적 인식은 그러나 다른 구체적 토대, 즉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해 왔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평등한 구조를 요구한다.

- 이매뉴얼 윌러스틴, 『유럽적 보편주의』

*자연법(natural law, 自然法): 실정법의 반대 개념으로서,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이나 규범을 뜻함.

[문제3] 제시문 (가)와 (나)가 내용상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고, 제시문 (나)의 주장을 '세계화'와 '지역화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

<16~17줄 (480~510자)> [30점]

[문제4] 제시문 (나)의 밑줄 친 부분들과 '문화적 상대주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시오.

<6~7줄 (180~210자)> [10점]